‘3배 수익 ETF’ 찾는 서학불개미… 엔비디아·테슬라 ‘줍줍’

해외주식 Click

여전히 엔비디아 선호도 높아
대형 기술주 순매수세 이어져
‘TD YL TSL IN ETF’까지 순위권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지난주에 이어 엔비디아, 테슬라 등 대형 기술주를 가장 많이 사들이면서도 기술주 하락에 배팅하고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 미국 장기채 등에 3배 차입투자(레버리지) 선호도 돌아오면서 불개미 면모를 발휘하고 있다.

1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주(9월 5일~11일)에 서학개미들은 엔비디아(4951만달러)와 테슬라(2504만달러)를 가장 많이 사들이며 꾸준한 지지 심리를 보였다. 다만 상위 1, 2위에 투자금이 몰렸던 종목 쏠림은 다소 개선된 모습이다.

이번 주에도 엔비디아에 대한 높은 선호가 유지된 가운데, ICE 반도체 하루 성과를 3배 역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베어 3배 상장지수펀드(ETF)’(SOXS)를 그 다음으로 많이 사들여 주목된다. 더불어 나스닥100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 역추종하는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숏 ETF’(SQQQ)도 순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기술주에 대한 비관적인 투자 심리가 드러났다. 나스닥100이란 미국 증시 상장사 중 핵심 기술주 100개를 모아 만든 지수다.

이렇듯 기술주 하락에 배팅하면서도 엔비디아, 테슬라 등 대형 기술주에 대한 순매수세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가 상충된다. 엔비디아와 테슬라 말고도 테슬라의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커버0드콜 방식의 고배당 상품 ‘TD YL TSL IN ETF’까지 순위권에 들었다.

또한, SOXS과 SQQQ처럼 3배 배팅 ETF가 순위권에 포진하면서 불개미의 면모도 드러나고 있다. 올해 초부터 11일까지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담았던 ‘디렉시온 데일리 20년 이상 국고채 불 3X ETF’(TMF)도 3배 추종 레버리지 상품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라 금리 인하 시 더 큰 수익이 기대되는 장기채 상품에 투자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안정적이라는 인식 때문에 안전투자 심리가 작용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3배 레버리지가 적용된 만큼 손실가능성도 높아진다. 실제로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TMF의 연초 대비 수익률은 -22.97%로 서학개미들의 짐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서학개미들은 이번 주에도 2256만달러(약 300억원)를 사들이면서 4위에 진입했다.

일학개미들의 순매수 1위 종목도 ‘아이셰어즈 미국채 20년물 엔화(JPY) 헷지 ETF’로 2068만달러(약 274억원)를 순매수하면서 전체 6위를 차지했다. 해당 상품은 20년이상 미국 장기채 에 투자하는 엔화 환헷지 ETF다. 엔저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엔화 강세시 환차익까지 노리겠다는 이중 전략이다.

이외에도 서학개미들은 ▲월배당 미국 부동산 리츠 리얼리티 인컴 ▲HITEK GLOBAL INC 등을 순매수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뉴시스

외국인 투자자, 국내 주식 9.1억달러 팔아

中 경기 둔화 등 우려커진 영향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9억 1000만달러를 팔아치웠다.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채권도 큰 규모의 만기가 도래하고, 미국 채권금리가 오르면서 7억 9000만달러 순유출 됐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주식과 채권을 합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17억 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으로 들어온 자금보다 빠져나간 자금이 많다는 의미다.

지난달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9억 1000만달러 빠져나갔다. 지난 8월말 원·달러 환율(1321.8원)을 적용하면 약 1조2028억원에 달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등의 영향으로 순유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채권투자자금도 7억9000만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 대규모 채권이 만기도래하고, 채권금리 등의 거래유인이 낮아진 영향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부산·광주·대전 등 후끈 달아오른 ‘청약’

두 자릿수 경쟁률로 1순위 마감
분양가 상승우려 등 적체현상

아파트 청약열기가 서울, 수도권에서 부산, 광주, 대전 등 광역시로 확산되고 있다. 미분양아파트 감소, 분양가 상승 등 시장 불안요인이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

부산, 광주, 대전 분양시장에선 두 자릿수의 높은 경쟁률로 1순위에서 마감한데 이어 분양가 상승 우려로 선별적인 청약 대기수요 적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광역시의 청약률을 살펴보면 지난달 대전 ‘둔산 자이 아이파크’는 평균 68.67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산에서는 ‘대연 디아이엘’이 고분양가 논란에도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5.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광주에서는 ‘상무센트럴자이’와 ‘교대역 모아엘가 그랑데’가 각각 11.93대 1, 13.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미분양 물량은 7월 현재 부산의 경우 2258가구로 전월(3107가구)보다 849가구 줄었다. 대전도 1458가구로 전월(1729가구)보다 271가구 줄었다. 다만 광주는 698가구로 전월(643가구)보다 55가구 늘었다.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 투시도.

지방 광역시의 집값도 강세다.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인스빌리베라’ 130㎡는 지난 7월 8억7000만원에서 8월 10억8000만원에 거래돼 한달새 2억원 이상 오른 사례도 나타났다. 대전 서구 둔산동 ‘한마루’ 101㎡는 8월 25일에 7억5000만원에 거래됐지만 9월1일에 1억원이 뛴 8억5000만원이 거래되는 일도 있다.

이런 가운데 대우건설은 이달 부산 광역시 남구 대연동 일원에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 59~114㎡, 총 1384가구 중 39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후분양 단지로 올해 12월 입주 예정이다. ‘푸르지오 써밋’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가 101동 최고층에 들어서 광안대교와 바다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 사우나, 라이브러리 카페, 키즈카페, 게스트하우스, 피트니스 클럽, 필라테스, GX룸, 골프클럽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제일건설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 A2블록과 A5블록에서 ‘첨단 제일풍경채’ 59~84㎡ 총1845가구 중 116~184㎡ 584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대우건설은 오는 10월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일원에 ‘관저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660가구 중 528가구를 분양하고 태영건설은 하반기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에서 주상복합 ‘대전 유천 1구역 지주택’을 선보인다. 아파트 718가구, 오피스텔 32실 규모다.

/이규성 기자 peace@

“韓 대표 참여형 지적재산 플랫폼 도약”

IPO 간담회

코스닥 시장 출사표 재도전

서영택 밀리의서재 대표이사.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가 다시 한번 코스닥 시장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해 기업공개(IPO) 도전에 실패한 이후 9개월만이다. 지난 IPO 때 기업고객(B2B) 사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삼성, LG전자 등 대기업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한층 성장한 모습으로 재등장했다.

12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IPO 기자 간담회에서 서영택 밀리의 서재 대표는 “독보적인 콘텐츠 보유량과 다양한 멀티 미디어 콘텐츠를 선보이며 국내 최대 독서 플랫폼으로 회사가 성장했다”며 “다양한 독서 니즈를 모두 충족하는 국내 대표 참여형 지적재산(IP) 플랫폼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2016년 설립된 밀리의 서재는 이듬해 국내 최초로 월정액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선보이며 출판업계에서 주목받은 독서 플랫폼 기업이다. 2023년 7월 기준으로 누적 구독자는 640만명을 확보했고, 제휴 출판사는 1900곳을 돌파했다. 2021년 9월, 지니뮤직에 인수됨에 따라 KT그룹에 편입돼 풍부한 독서 콘텐츠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2년에는 매출액 458억원과 영업이익 42억원을 달성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매출액 260억원과 영업이익 50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률은 19%를 달성했다.

/신하은 기자

GS건설, 업계 첫 자체 개발 앱 홈네트워크 ‘AAA등급’ 인증

첨단 스마트홈 서비스 제공 노력

GS건설이 업계 최초로 자체 앱으로 홈네트워크 건물 AAA등급을 인증받았다.

GS건설은 지난 7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위례자이 더 시티 단지에 대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 및 홈네트워크 AAA등급을 동시에 인증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초고속정보통신 및 홈네트워크 인증은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별로 받는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인증한다.

가장 높은 등급인 특등급, AAA등급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배선 설비 ▲기기 설치 ▲배관 및 기타 설비 ▲IoT 확장성 등의 100여개가 넘는 기준들을 만족해야 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최근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 체계 등과 연계해 보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첨단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금투협, 부산 등 차세대 금융인력 마련 행사

‘대학생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대회’

금융투자협회는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부산 금융중심지를 이끌어갈 차세대 금융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대학생 1~4명이 팀을 구성해 주어진 상황에 적합한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면 금융투자업계 전문가가 심사해 평가한다. 공정성을 위해 모든 심사는 블라인드로 진행된다./원관희 기자 wkh@